

보여주고 싶은 욕망의 場 - 흑기사 XIAN Ground for the Desire to be Seen Black Knight XIAN

민선주/ 위가건축
by Min Sun-Ju



“우리는 로데오 거리 쇼윈도의 그 투명한 유리를 통해 새마을 운동, 경제개발 5개년계획, 국민교육헌장, 유신 등 우리 현대사의 파편들을 볼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이미지와 기호들에 억압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 투명한 유리에 반영된 우리의 분열된 얼굴 - 유교적 전통과 서구 모더니즘의 열성 교배에서 파생된 기호들에 억압되어 일그러진 얼굴 - 을 볼 수 있다. 로데오 거리의 투명한 유리 속에는 처절한 우리 현대사의 파편과 그 파편의 조각들이 있고 이 조각들은 다양한 각도를 가지고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압구정동의 복제된 아이들은 유럽의 어느 부분을 도려내서 혹은 북미의 어느 공간을 오려서 한강변 뽕밭에다 어느날 갑자기 슬쩍 붙여놓은 것이 압구정동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복제된 아이들은 우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존재하는 압구정동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부정한다. 이러한 부정은 현재라는 공간 -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차원적인 - 속의 일상을 더욱 더 강도 높고 열정적인 것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일상은 단절된 시간 속의 분열된 파편으로서 존재하게끔 한다. 복제된 아이들은 현재라는 납작한 공간에 존재하기를 원하며 이것은 시간이라는 길죽한 직선의 포기를 의미한다. 압구정동의 현재는 시간이라는 길죽한 선에서 이탈된 현재이다. 다시 말해서 압구정동의 현재는 과거, 현재, 미래 속의 현재가 아니라 이것들이 분열되고 파편화된 여러 개의 조각 중에 하나의 조각으로서의 현재일 뿐이다. 이렇게 조각난 현재 속에는 내일이 없다. 그 이유는 압구정동의 현재라는 시간이 초월된 현재 혹은 초월된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그 시간은 단절된 것이기 때문이다. 초월된 현실 속에서 실재는 존재할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압구정동의 이미지와 기호들은 그것에 대응하는 실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압구정동의 이미지들은 현실을 기초로 생성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압구정동이라는 공간 자체가 현실이라는 공간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이고 압구정동 자체가 가상의 현실을 그 모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구정동 공간 속에서 가상의 실재는 현실이 된다.” - 엄혁, 압구정동: 억압의 역사와 아이들의 미학 -

시안의 비평 원고청탁을 받고, 비록 이 건물이 청담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압구정동에 대한 언급이 없이는 본 건물을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필자가 해왔던 대로 컨텍스트를 근거로 하여 작품을 평가하다보면 청담동의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배경을 논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압구정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의 글이 쓰여진 시점은 1992년이었고 필자의 기억으로는 시안이 위치한 청담동은 아직 덜 상업화가 되었던 때이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청담동은 대로변으로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섰을 뿐만 아니라 블록 내부로도 대로변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상업화가 되었다. 시안과 같은 블록에 처음 “하루에”라는 찻집이 생기면서 전혀 모를 골목 속에 찻집이 위치하였는데도 사람들이 줄을 섰다며 신기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마 3~4년 전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최근 시안과 그 일대를 몇번 방문해보고 상업 용도의 건물들이 얼마나 점조직처럼 파고들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정착되고 자라난 문화파편

청담동 쪽으로 새롭게 개발이 된 건축물들을 통해 아직도 이곳에는 이전 압구정동에서 보여주던 일면들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게 된다. 아직도 이곳은 우리 나라 어느 곳보다 외국의 것이 가장 먼저 착륙하는 곳임에 틀림이 없다. 아니 어느 찻집에 들어가면 우리가 서울이 아니고 뉴욕의 한 카페에 와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킬 정도이다. 그리고 이곳을 드나드는 젊은 계층의 사람들은 금방 잡지책 속에서 튀어나온 것 같이 근사한 이들이 대부분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아마 5~6년 전에도 이 일대에 존재하였던 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요새 새롭게 발견되는 점들은 전에는 국적을 모를 것과 같았던 그리고 내일이 없었던 그런 곳에 “지금”이 그 “내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아직도 그곳에 가상 속으로 들어간 것과 같이 느끼도록 하는 시간의 파편인 장소들이 있지만 “시안”은 새롭게 정착되고 자라난 문화의 한 부분을 보

여주는 장소이다. 앞에서의 글에서와 같이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 압구정동의 세대들은 서태지를 좋아하던 시절에서 벗어나 조금은 성숙한 세대들로 자리났고, 그들을 수용하기 위한 장소들이 조금 더 성숙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압구정문화를 배척하고 비난하기 보다 이미 우리의 일부 젊은 세대들에게 자리잡은 문화라면 이를 긍정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의지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 글의 “우리”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시작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대목을 필자는 무척 사랑한다. 그와 같은 사고가 유독 압구정동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전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압구정동에는 외국 것이 금방 들어온다. 실제로 일본의 문물이 일주일이면 위성방송을 통해, 직접 건너오는 사람들을 통해 쉽게 새 것이 전해 온다. 세계 여러 나라의 첨단적 소비재와 감각적 패션이 이곳에 다 물려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도시중심으로 재편되는 듯한 세계규모의 자본주의체제는 이러한 공간을 곳곳에 창출해놓고 있으며 문화적 혼합과 혼성의 상황을 초래하였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본질적’인 것을 고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뉴키즈 온 더 블록’을 보고 환호하는 것보다 ‘서태지와 아이들’을 보고 환호하는 것이 낫다고 하던 어느 교수의 이야기는 순진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일리가 있다. ‘우리’를 이야기하려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시작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미 서양화된 대로 서양화된 우리를 놓고 서양화되지 않은 어떤 ‘고유한’ 우리를 찾아보려 한다면 긴 식민지적 상황을 겨우 빠져나온 우리는 또 한 번 우리를 소외시키고 말게 될 것이다. 북고적 민족주의에 빠져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 조혜정, 압구정 공간’을 바라보는 시선들: 문화정치적 실천을 위하여 -

그런데 이렇게 성숙해진 청담동의 공간들이 한편으로는 외국의 영향을 받은 면도 없지 않겠지만, 우리가 5~6년 전에 걱정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정착되고 거기에서 새롭게 자리나기 시작한 것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시안”은 그런 면에서 이전에 이식되었던 문화의 한 부분이 이곳에 정착해나가는 한 예라고 생각한다.

동양과 서양의 퓨전

필자에게 “시안”은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틈틈이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프로젝트였다. “시안”을 설계한 진아건축의 부대진 사장님은 필자가 가장 아끼는 후배, 부상훈의 아버님이시고 이 프로젝트에는 두父子뿐만이 아니고 부대진 사장님의 둘째 아드님과 며느님이 같이 참여하였고 건축주는 둘째 아드님의 친구이다.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 낸 과정은 어느 외국의 장소를 흉내내기 보다는 현재 외국과 우리 음식문화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맞추어서 계획이 된 것이고, 건축주 자신도 어려서부터 이러한 장소와 사업을 꿈꾸어왔던 이로 들은 바 있다. 특히 “시안”이 제공하는 메뉴 자체가 퓨전 스타일의 음식으로 서양식과 동양식이 접합된 스타일의 음식이다. 지난 몇 년간 외국에서도 퓨전 스타일의 음식들이 관심을 끌었고, 한 예로 뉴욕에서 오정미가 가장 전형적인 한국 음식과 서양 음식의 퓨전 스타일 식당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정미는 한국에서 미술을 전공하고 후에 요리를 공부한 이로 단순한 맛뿐만 아니라 음식의 아름다움과 퍼포먼스로 널리 알려진 요리사로, 한국의 문화를 가장 성공적으로 외국에 알리는 예술인으로 생각된다. 한국 음식 이전에는 베트남 음식과 불란서 음식의 퓨전과 중국, 일본 음식의 퓨전을 접해본 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동양의 문화가 서양으로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는 과정의 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동시에 지역적인 문화의 특성이 세계화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시안”으로 돌아와 이야기하자면 이곳은 아마 지역문화와 세계문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접합되는 곳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양의 문화가 압구정의 지역문화, 그리고 한국의 보편적인 지역문화와 같이 섞여, 이를 음식에서나 건축에서 잘 전달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특히 건축적으로는 기본 설정이 이 지역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이 된다. 대지 건너편에 위치한 주택과 본 건물의 상업적인 공간을 분리하기 위하여 전면에 타공철판의 벽을 마련해 주었다. 그런데 이 벽은 단순히 건너편을 무시하고 단절하기 위한 벽이기보다, 낮에는 빛을 받아들이고 또 저녁에는 빛을 새어나가게 하며 상대방을 의식한 벽이다. 기본 공간의 구성에서도 기존하였던 전형적인 주택의 공간을 받아들였지만 그 이전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무척 놀랍다. 오히려 그 이전의 주택이 국적없는 주택이었다면(이제는 집장사 집도 전통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 마당을 내부 공간과 더 직접적으로 연계시켜주는 더 우리의 전통 공간 개념을 잘 살린 안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압구정의 지역문화를 잘 살린 부분이 긴 계단을 통해서 입구에 들어서서 식당 공간으로 내려가려면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는 서로 보이고 보기 위한 연출로, 기본 설계의도에서 들어오는 곳이 스테이지와 같아서 근사하게 차려입은 것을 뽐내고 또 훑쳐보라고 계획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화 현상을 이순원은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없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물이 좋은 압구정동의 카페들은 자신을 과시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바라보는 공간이다. 노출과 훑쳐보기가 자연스럽게 교차된다. 카페나 음식점, 커피 전문점들이 하나같이 밝은 실내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연출을 모른 채 시누와 같이 들렀던 필

자는 식사를 하는 동안 내내 바늘 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계획하였던 연출이 충분히 효과를 발하고 있었던 증거이다.

건축주 층의 확대

“시안”과 같은 좋은 상업 건물들이 최근 많이 지어진 것을 반갑게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일반 대중이 일부러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식사하면서도) 건축에 관심을 쏟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좋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관공서나 집단, 일부 특수 계층의 사람들만이었던 시대를 지나 더 넓은 계층의 사람들이 좋은 건축물에 관심을 쏟고, 직접 건축주가 될 수 있는 현상은 무척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압구정동에 대해서 쓴 글들을 읽으면서 특이하게 느꼈던 사항은 글들이 인문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쓴 글들인데도 공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대중문화에서 가장 먼저 건축적으로 눈을 뜨는 지역이 압구정동이기 때문

Along the show windows of Rodeo Street located across the road from Galleria Department Store, various items are displayed in brilliant, fancy design. Show window is a private and public space where communication and value exchange occur. However, the show windows along Rodeo Street of Abkujung bear meaning beyond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private or public space.

Through the transparent glass of Rodeo show windows, we can see fragments of our contemporary history such as the New Community Movement, the National Charter for Education, the Revitalizing Reforms and so on. We, also, can see ourselves suppressed by such images and symbols. We can see our disrupted faces, the deformed faces oppressed by symbols derived from inferior hybridization of our Confucian tradition and Western modernism, reflected on the clear glass. Inside the transparent glass of Rodeo Street, there exist fragments of our miserable contemporary history and these fragments reflect ourselves in many different angles.

Duplicated teenagers of Abkujung believe that a part of Europe or some space in North America had been cut off and attached to the mulberry field near Han River and that one day all of sudden Abkujung-dong came to be. Therefore, they deny its existence within the flow of our history. Such denial may make the daily routine within the space called present two dimensional

이지 않을까하고 생각해본다. 무턱대고 압구정 문화를 비난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를 어떻게 끌어내갈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으로, “시안”이 한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믿어본다.

대담 내용을 팩스로 받고

위의 글을 급히 끝낸 직후 동정근 교수님의 대담 내용을 팩스로 전해 받았다. 필자의 글은 이전에 부상훈으로부터 진행과정에 대해서 잠깐 들은 후 전화로 2~3분간 추가 설명을 들은 외에 독자적으로 생각해낸 내용인데, 대담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 신기했다. 그래서 다시 내용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그리고 지금 다시 위의 글을 읽어보았다. 일부러 잘 쓰려고 한 것도 없었고, “시안”은 근사한 건축물로 그가 속한 문화적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에 더 이상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였다.

space where time does not exist - more passionate, but at the same time, it makes the routine exist in disintegrated fragments of broken time. Duplicate teenagers desire to exist in flat space of present, and this signifies their giving up of long linear time. We have experience of cut off history whether it was caused by voluntary/forced or inner/external factors. Cut off history signifies cut off time and cut off time again signifies cut off language that fails to be completed. For these reasons, our general consciousness/unconsciousness partially lost its ability to linearly assemble the before and after relationship of history, time and language.

Present of Abkujung is that which has broken away from long line of time. In other words, the present of Abkujung is not that which is in past-present-future line. Rather it is only a fragment among the many pieces derived from breaking and disintegrating the line. Within such fragmented present, there is no tomorrow. This is because the present of Abkujung exists in transcended present or in transcended reality and it is cut off. In transcended present, reality can not exist. Likewise, the images and symbols of Abkujung do not have corresponding actuality. The images can not form based on reality, because, the space, Abkujung, itself, has broken away from the space of present and Abkujung, itself, follows a model of hypothetical present. Therefore, hypothetical being in the space of Abkujung becomes reality.

Hyuk, Uhm, Abkujung-dong : Suppressed history and aesthetics of children.

After being requested to write critique for Xian, I felt it is difficult to evaluate the concerned building, though it is located in Chungdam-dong, without mention of Abkujung-dong. As I always have done, to evaluate the work based on its context, I will have to discuss not only physical but also social, cultural background of Chungdam-dong, and in doing so, its relationship to Abkujung-dong will surely come up. Quoted writing above had been written in 1992, and as I recall, it was when Chungdam-dong region where Xian is located was less commercialized. During the six years since then, fancy buildings have lined up along the big main street of Chungdam-dong, and even the small roads of the block branching out from the main street have been incredibly commercialized. It was already 3 or 4 years ago when I heard people talking about a caf called Haruae situated in the same block as Xian, amazed at how crowded it was despite its disadvantageous location. Recent visits to Xian and its neighborhood made me realize the extent to which commercial buildings have eaten into the district as point structures.

Culture fragment that has settled and developed

Through newly developed buildings in Chungdam-dong area, I see some characteristics of Abkujung-dong partially existing, yet at the same time, I discover new different aspects. Still this is definitely the place where foreign culture arrives earlier than any other place in our country. When sitting at a caf there, we almost have illusion that we are at a caf in New York, not Seoul. Young people coming in and out of this area mostly look very chic as if they just popped out of a fashion magazine. Probably even 5~6 years ago, such features did exist. What has newly been discovered recently is that the present of the place with unknown nationality that seemed will have no tomorrow has become that tomorrow. There still are fragmentary places that make us feel we have entered a false image. However, Xian is a place that represents an aspect of newly settled and developed culture. The Abkujung-dong generation that caused much concern and worry as described in the quoted writing above have escaped from the days they worshipped Suh Taeji and have matured to some degree. As result, the places

that accommodate them have also matured. Rather than unconditionally expelling Abkujung culture, we need the will to optimistically develop it, since it is a culture that has already settled among many of our young generation. From following writing, I especially like the part that says If we are to discuss about us, shouldnt we start off with ourselves present here? Such attitude is required not only in evaluating Abkujung but also in understanding our culture in general. Foreign things enter Abkujung-dong fast. In actuality, Japanese civilization is readily passed onto this area in one week, either through satellite broadcasting or through someone coming from there. People say the latest consumer goods and the newest fashion are all gathered there. However, the capitalistic system in international scale that seems to concentrate in urban areas has created such space in many various places and has brought about mixed culture and confusion. What does it mean now for us to persist in our essential qualities? One professor once claimed It is better to cheer at Suh Taeji than at New Kids on the Block. This may sound naive but it does have a point. If we are to discuss about us, shouldnt we start off with ourselves present here? If we try to find not westernized peculiar us when we have already been as westernized as can be, we who have barely escaped long colonial situation would once again be isolated. We should not stand still drowning in regressing nationalism. Hae-Chung Cho, Views on Abkujung Space : Toward Culture-Political Practice

Such matured Chungdam-dong spaces probably can not have escaped totally from foreign influence, however, we can not deny the fact that what we had worried about 5~6 years ago has settled and newly developed from there. Xian in that respect is an example of case where a part of culture transplanted in former days is settling.

Fusion of East and West

From the beginning stage of its planning, I have occasionally been informed of its progress and thus, Xian was not an unfamiliar project to me. The architect who designed Xian, Mr. Dae-Jin Bu, is the father of one of my close juniors, Sang-Hoon. The two men along with Mr. Bus second son and his wife also were involved in this project. The client was a friend of his second son. This project was planned not to imitate some restaurant in another

country but to accord with the outcome of current foreign and domestic food culture analysis. I heard that the client, since he were young, has been dreaming of such place and business. The menu Xian provides, itself, is food of fusion style that joined the western with the eastern. Past few years, fusion style foods have also attracted interests abroad. The fusion restaurant of traditional Korean and western foods that Jung-Mi Oh has been running successfully in New York can be one example. After graduating art school in Korea, Jung-Mi Oh started the studies of cooking. As a chef widely known for the aesthetics and performance of her cooking as well as the taste, she, I believe, is the artist that has most effectively publicized Korean culture to the world. Prior to Korean food, I had seen fusion of Vietnamese and French foods and that of Chinese and Japanese foods. Such phenomenon shows that eastern culture is becoming more actively known to the West and at the same time, that characteristics of a regional culture is becoming internationalized.

Returning to discussion of Xian, Xian may be considered one of the places where regional culture and world culture have most actively come together. It is a project where the western culture mingles with Abkujung culture and general regional cultures of Korea. Such characteristic is well portrayed in the food and the architecture. Particularly, the basic setting of its architectural design starts off with consideration of the district. In order to separate the building from the residence across the street, the design provided an iron plate wall on the facade. This wall rather than disregarding and cutting off the residence across stays conscious of the counterpart, absorbing light during the day and leaking out the light at night. Regarding basic composition, also, the design accepted the typical residential space of the existing house. It is amazing that, even so, no one can imagine what it was like before. All the better, if the existing house were a denationalized building (though buildings built solely for commercial purpose might be a part of our tradition now), the new design well utilizes the concept of our traditional space by more directly connecting the courtyard with the interior. At the same time, it well transfers the regional culture of Abkujung. Through long stairs one enters the restaurant and before he steps down to reach the main dining area, he gets the feeling that everyone is looking at him. The circumstance intended is to see and to

be seen. Design concept explains the entrance as a stage where nicely dressed customer gets a chance to show off his or her fashion and people can have a peek. However, such cultural phenomenon is described as follows in Lee Soon Wons There is no exit in Abkujung. Popular cafes of Abkujung are spaces to show oneself off and at the same time, to view the others. Exposures and furtive glances intersect naturally. The reason cafes and restaurants emphasize bright interior lies here. Not understanding such intention of design, I felt very uncomfortable

Expansion of client class

Another reason for welcoming recent increase in the well designed commercial buildings such as Xian is that it provides opportunity for the general public to have interest in architecture even in unintended situation (even when having meal). Furthermore, it is extremely desirable that wider class of people acquire interest in architecture and become architects themselves to move on from the days when architectural clients were limited to just government, public offices or privileged upper class. What I found interesting while reading writings on Abkujung-dong was that, though they were written in point of cultural sociology, the writings often mentioned about spaces. I believe this is because in our mass culture the region that first opens its eyes architecturally is Abkujung-dong. Rather than blindly criticizing Abkujung culture, we need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properly developing it. I trust Xian will become a good precedent.

Upon receiving interview text

Right after urgently finishing above writing, I received the text of interview with Professor Jung-Keun Dong through fax. My writing was based on few talks with Sang-Hoon during process of design and 2-3 minute additional explanation over phone. The rest was purely my personal views thought out independently. The interview text, however, was amazingly similar to my writing and I felt the urge to revise my text. Just now, I read above writing once again. There was no intention to critique nicely about the project. And I reconfirmed that there is nothing more to add or correct to the fact that Xian is a smart architecture that well expresses the cultural situation it is at.